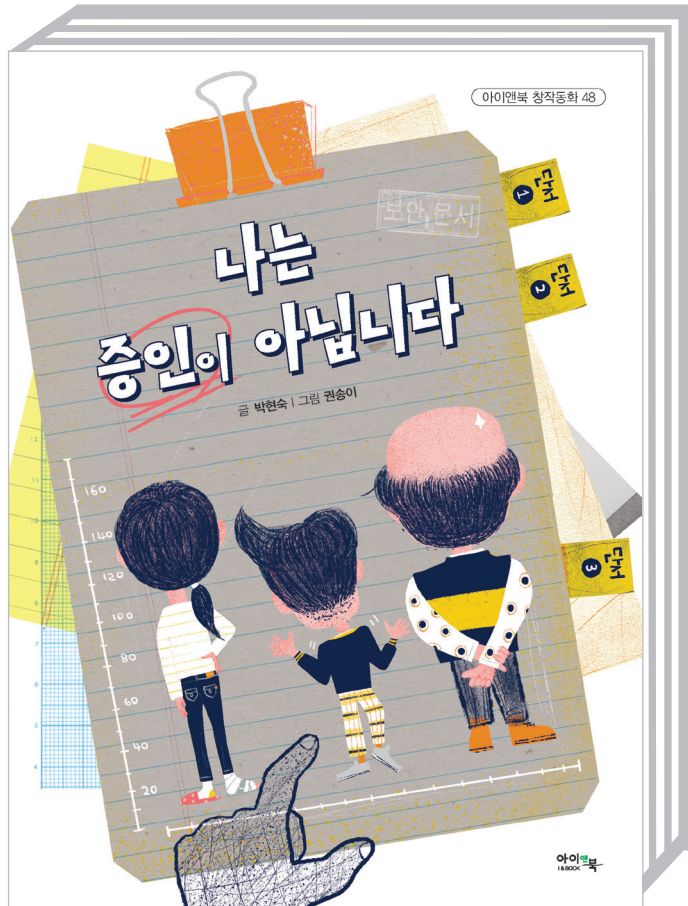


초등학교
3~4학년

독서 수업 활동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요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만든 소용돌이 같은 이야기

글 박현숙 | 그림 권승이

독서 수업 주안점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독서하는 즐거움을 알기
- 작품 속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기르기
-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바탕으로 어휘력과 독해 능력 기르기
-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 알아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고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 기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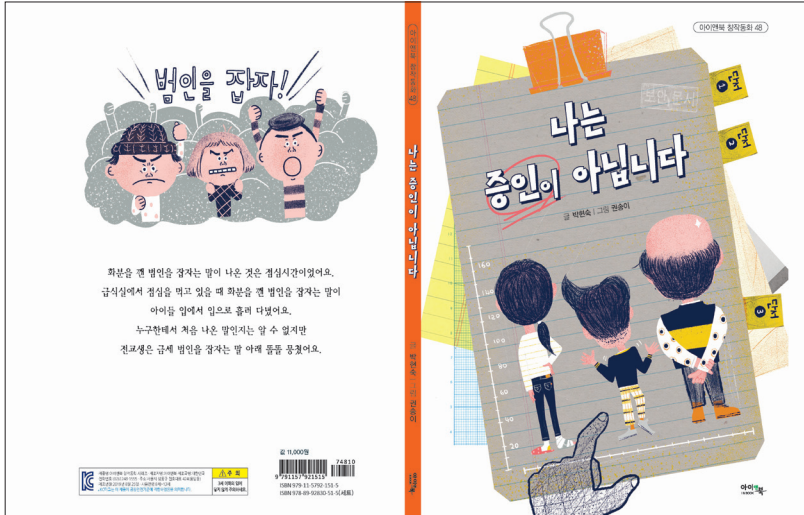
차시별 수업 계획 예시

단계	적요	차시	활동 내용	비고
1	들어 가기	1	책 읽기 계획 세우기 ① 책의 표지를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② 책의 차례를 살펴보고 내용 짐작하기	학생들과 함께 독서 전 활동하기
2	독후 활동	2	책 읽기 방법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기 ③ 국어사전을 찾아보며 책 읽기	책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하여 책을 읽고 학생들과 함께 독후 활동하기
			책 읽기 방법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기 ④ 어휘력 기르기	
		3~6	생각 나누기 및 독후 활동 ⑤ 사건의 순서 알아보기 ⑥ 세부 내용 이해하기 ⑦ 인물의 성격 알아보기 ⑧ 인물의 생각 비교하기 ⑨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⑩ 이야기 바꾸어 쓰기	
3	정리 하기	7	정리 활동 ⑪ 독서 활동 돌아보기	학생들과 함께 정리하기



책을 읽기 전에 표지에 있는 제목이나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책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1. 표지에 적힌 정보를 살펴보고, 정리해 보아요.



제목

시리즈명

글쓴이

그린이

출판사

2. 책 앞표지에 제시된 제목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를 통해 상상해 볼 때,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3. 앞표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살펴보아요.

- ① 그림 속의 세 인물은 누구일까요?
- ② 인물의 뒷모습을 그려놓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 ③ 손가락이 가리키는 인물의 표정을 상상해 봐요.

4. 뒤표지의 그림과 글을 통해 상상해 볼 때, 이 책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책의 표지에는 제목, 지은이, 그림을 그린 이, 출판사, 책의 내용, 책을 대표할 만한 그림 등이 들어 있어요. 표지에 적힌 정보를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긴 표지의 그림을 바탕으로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나 의견 등을 예측해 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차례를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짐작해 봅시다.

차례	
1. 진짜 피곤해서	• 10
2. 세상에 귀신은 없대니까!	• 20
3. 누구였는지 생각해 봐	• 29
4. 소문	• 39
5. 증인이 되다	• 49
6.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쳤는데	• 58
7. 학교를 그만둔대	• 69
8. 비밀을 지켜 줘	• 78
9. 나는 진짜 증인이 아닙니다	• 88

차례

1. 진짜 피곤해서
2. 세상에 귀신은 없대니까!
3. 누구였는지 생각해 봐
4. 소문
5. 증인이 되다
6.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쳤는데
7. 학교를 그만둔대
8. 비밀을 지켜 줘
9. 나는 진짜 증인이 아닙니다

1.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는 몇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2. 차례의 그림과 각 장의 제목을 살펴볼 때, 어떤 인물들이 나올까요?
3. 각 장의 제목을 읽고 나서 가장 재미있어 보이는 부분은 몇 장인가요?
4. 각 장의 제목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아요.



차례를 보면 책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또 기억에 남는 내용을 찾거나 할 때 그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요. 책을 읽기 전에 차례를 살펴보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짐작해 보아요.



책을 읽으며 뜻을 모르는 낱말의 기록장을 만들어 봅시다.

-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에서 뜻을 알고 싶은 낱말과 그 낱말이 나온 문장과 쪽수를 적고 온라인 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 써 보아요. (*참고할 만한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사전 등)

낱말수	낱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말이 들어간 문장 • 낱말 뜻
예시 답안 50쪽	S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튼 학부모님들까지 SNS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고 황동우도 헛소문을 낸 게 아니라면서 억울하다고 하니 억울하다는 아이를 모른 척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이나 누리집 따위를 관리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면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책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앞뒤 문장을 바탕으로 뜻을 짐작해 본 다음, 자신이 짐작한 뜻이 맞는지 국어사전, 백과사전, 전자사전 등을 활용하여 찾아보도록 해요.



책 내용을 떠올리며 책에 나오는 낱말의 뜻과 쓰임을 알아봅시다.

1.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의 일부분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형 방으로 갔어요. 형은 나를 힐끗 보더니 곧 고개를 돌려 버렸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넘어져서 발등을 다쳤다며? 어디에서 넘어진 거야?”

“그게 왜 궁금해? 너는 몰라도 돼.”

형은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내 방으로 와서 침대에 벌렁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나) “황동호, 네가 증인이 되어 주면 나는 화분을 깬 범인을 잡은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교 회장도 될 수 있어.”

“전교 회장 하지 마.”

거짓말을 해서 전교 회장이 되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황동호.”

형이 아랫입술을 깨물었어요.

“싫다고.”

(다) “황동우가 그러는데 황동호 네가 지킴이 할아버지께서 화분을 깨뜨리는 것을 봤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교장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형이 내 발을

밟았어요. 대답하라는 뜻일 거예요.

(1) ㉠에 들어갈 문장을 골라 보세요.

- ① 생각이 꿀떡 같았어요.
- ②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았어요.
- ③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 ④ 거미도 줄을 쳐야 거미를 잡는다고 했어요.
- 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셨어요.

(2) ㉡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보세요.

보기

지그시 지긋이

샘
talk

정확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어를 정확히 알고, 속담, 관용어 등을 많이 알아 두면 내용을 책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글을 쓸 때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책 내용을 떠올리며 주인공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시다.

1.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리한 것이에요. <보기>에서 알맞은 내용을 골라 써 보아요.

보기

- 형은 전교 회장을 하기 싫다고 말하며 지킴이 할아버지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물었다.
- 어두운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다리를 절고 있는 누군가를 보았다. 다음날 제일 먼저 학교에 오신 담임 선생님이 깨진 화분에 발이 다치셨다.
- 지킴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둔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할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예뻐하였다.
- 형은 ‘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교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깨는 것을 본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1) 번번이 지각을 하던 ‘나’는 어느 날 지각도 하지 않고 준비물도 안 빼먹고 전교 일등으로 학교에 일찍 도착했다. 그 때문에 하루 종일 학교에서 졸다가 화장실에서 밤이 될 때까지 잠이 들었다. _____

(2) ‘나’의 이야기를 들은 형은 평소 착하고 솔직하기로 유명한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깬 범인 같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형은 그것을 학교에 소문 냈다. _____

(3) ‘나’는 거짓말쟁이 집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지킴이 할아버지께서 화분을 깨뜨리는 것을 봤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 나는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깬 일로 경찰서에 잡혀갈까 봐 걱정이 되었다. _____

(4) 형의 발등에 앉은 딱지를 보고, ‘나’는 형이 화분을 깬 당사자임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이 사실을 교장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유치원 때부터 모은 저금통을 털어 화분값으로 교장 선생님께 드렸다. 그리고 지킴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점심시간에 교장 선생님은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깬 범인이 아니며 학교를 그만두지도 않을 것이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_____

샘 talk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전체 내용을 간추릴 수 있어요. 때를 나타내는 말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에 밑줄을 그으며 읽으면 일의 순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책 내용을 떠올리며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 봅시다.

1. 지킴이 할아버지의 국민학교 시절과 지금 '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2. '내'가 지킴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3. '내'가 전교 일등으로 학교에 간 날 어디에서 잠들었나요?
4. 선생님이 오른발을 다친 까닭은 무엇인가요?
5. 다음 단서를 듣고, 형은 화분을 깬 범인이 누구라고 짐작하였나요?
6. 범인에 대한 소문을 낸 것은 누구였나요?
7.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 말은 무엇인가요?
8. '나'는 교장 선생님께 드릴 화분값을 어떻게 마련하였나요?
9. 실제로 화분을 깨뜨린 사람은 누구였나요?
10. 형이 전교 회장을 하기 싫어졌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샘
talk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거나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메모한 부분을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간추리거나 정리해 보아요. 이렇게 하면 책의 내용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책의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정리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인물의 의견과 뒷받침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1.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의 인물 카드에 나타난 말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빈칸에 인물의 성격을 알아보아요.

지킴이 할아버지	형	‘나’(황동호)
		
<p>지킴이 할아버지는 친절하고 ‘내’가 지각을 할 때면 위로도 해주고 준비물을 빼먹고 오면 다른 아이들한테 빌려서 주기도 한다. 또 지킴이 할아버지는 정직하다.</p>	<p>“헛소문을 낸 아들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창피하겠니. 전교생이 모두 자기네 집에 가서 내 얘기를 할 테고 엄마 아빠도 덩달아 나와 함께 유명해지는 거야. 안 좋은 거로 유명해지는 거지.”</p>	<p>정말, 정말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 얼굴이 떠올라 지킴이 할아버지께서 화분을 깨뜨리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다.</p>
<p>나는 거짓말을 해서 지킴이 할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든 아주 나쁜 아이예요. 그런데 지킴이 할아버지는 나를 걱정했어요.</p>	<p>형은 내 손목을 끌고 방으로 갔어요. “너, 지킴이 할아버지랑 친하지? 지킴이 할아버지 전화번호 알아?” 나는 휴대 전화에서 지킴이 할아버지 전화번호를 찾아 형에게 주었어요.</p>	<p>“그 화분 엄청나게 비싼 거라고 들었어요. 이 돈으로 화분값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이거 받으시고 지킴이 할아버지를 학교에 계속 계시게 해 주세요.”</p>



인물의 성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봐야 해요. 인물의 성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나만의 등장인물 카드를 만들어 두면 인물의 성격을 더 잘 정리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인물의 생각을 비교해 봅시다.

1.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다음 장면에 나타난 인물의 생각을 비교해 보아요.

(가) “황동호, 네가 증인이 되어 주면 나는 화분을 깬 범인을 잡은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교 회장도 될 수 있어.”
 “전교 회장 하지 마.”
 거짓말을 해서 전교 회장이 되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황동호.”
 형이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어요.
 “싫다고.”
 “제발.”
 “나는 거짓말하는 증인 되기 싫다고.”
 나는 힘주어 말했어요.

(나) “지킴이 할아버지가 맞아.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황동호, 형 좀 도와줘. 만약 내가 헛소문을 낸 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는 거짓말쟁이로 몰려서 전교 회장이 못 돼.”
 “상관없어.”
 “그래, 좋아. 내가 전교 회장이 안 되어도 너는 상관없을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도 곤란해져.”
 왜 여기에서 엄마 아빠가 나오나요?
 “헛소문을 낸 아들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창피하겠니. 전교생이 모두 자기네 집에 가서 내 얘기를 할 테고 엄마
 아빠도 덩달아 나와 함께 유명해지는 거야. 안 좋은 거로 유명해지는 거지.”
 형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형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1) ‘나’와 형의 의견과 뒷받침 내용을 정리해 보아요.

	형	‘나’(황동호)
의견		
뒷받침 내용		

(2) 나는 형과 ‘나’ 중 누구의 의견에 찬성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 보아요.



인물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중심으로 책을 읽어 보면 좋아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인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며 읽거나 나의 생각과 비교하며 읽어 보는 것도 좋아요.



책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 1.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에서 형이 화분을 깬 것이 자신이라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지 써 보아요.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의 사건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나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보아요. 이와 같은 글을 쓸 때에는 바르고 정직한 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도록 노력해요.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재미있게 다양한 형식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1. ‘내’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학교 아이들이 먼저 형과 ‘나’의 거짓말을 밝혔다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지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해 보아요.

시

편지

일기

만화

그림

샘
talk

글감에 알맞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과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 등을 떠올려 보아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생각해 보아요. 그런 다음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을 골라, 자유롭게 써 보아요.



책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1.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를 어떻게 읽었는지 생각해 보고, 알맞은 곳에 표시해 보아요.

	잘함	보통	부족
책을 읽기 전에 책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았나요?			
책을 대충 읽지 않고 차근차근 생각하며 읽었나요?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사전을 찾아 가며 읽었나요?			
인물의 마음을 떠올리며 읽었나요?			
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나요?			
책을 읽고 생각과 느낌을 글이나 말로 잘 표현했나요?			

※'부족'에 표시한 것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책을 읽을 때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요.

2.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건가요?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3.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와 관련 있는 다른 책을 더 찾아 목록을 정리해 보아요. 그중에서 가장 읽고 싶은 책은 무엇인지 써 보아요.

샘
talk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추천하거나, 혹은 책이 어땠냐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며 되돌아보기의 물음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 보면 좋아요.

예시 답안

003쪽

1. 제목: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 / 시리즈명: 아이앤북 창작동화 48 / 글쓴이: 박현숙 / 그림이: 권송이 / 출판사: 아이앤북 출판사
2. 증인이 된 아이의 이야기가 담긴 것 같아요.
3. ① 여자 선생님, 남자아이, 어른 ② 책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게 하려고 ③ 손짓으로 보아, 두려운 표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4. 사건이 벌어지고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004쪽

1. (9)개의 장
2. 귀신, 증인 등
3. 9. 나는 진짜 증인이 아닙니다
4. 진짜 피곤한 상황에서 귀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게 됨. 귀신이 무엇인가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누구였는지 궁금해함. 소문이 퍼지고, 귀신을 본 증인이 됨. 작은 잘못으로 인하여 장발장처럼 누군가 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김. 누군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비밀을 지켜 달라고 이야기함. 나는 진짜 증인이 아니라 가짜 증인이었음을 밝히는 일이 벌어짐.

006쪽

1. (1) ③ (2) 지그시
1. 비록 / 분명

007쪽

(1) 번번이 지각을 하던 ‘나’는 어느 날 지각도 하지 않고 준비물도 안 빼먹고 전교 일등으로 학교에 일찍 도착했다. 그 때문에 하루 종일 학교에서 졸다가 화장실에서 밤이 될 때까지 잠이 들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다리를 절고 있는 누군가를 보았다. 다음날 제일 먼저 학교에 오신 담임 선생님이 깨진 화분에 발이 다치셨다.

(2) ‘나’의 이야기를 들은 형은 평소 착하고 솔직하기로 유명한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깬 범인 같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형은 그것을 학교에 소문 냈다. 형은 ‘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교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깨는 것을 본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3) ‘나’는 거짓말쟁이 집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지킴이 할아버지께서 화분을 깨뜨리는 것을 봤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 나는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깬 일로 경찰서에 잡혀갈까 봐 걱정이 되었다. 지킴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둔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할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예뻐하였다.

(4) 형의 발등에 앉은 딱지를 보고, ‘나’는 형이 화분을 깬 당사자임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이 사실을 교장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유치원 때부터 모은 저금통을 털어 화분값으로 교장 선생님께 드렸다. 그리고 지킴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점심시간에 교장 선생님은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깬 범인이 아니며 학교를 그만두지도 않을 것이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형은 전교 회장을 하기 싫다고 말하며 지킴이 할아버지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물었다.

008쪽

1. 지각왕
2. 솔직하고 정직하다. 평소 운동장이나 복도에 작은 쓰레기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3. 화장실 변기 위
4. 깨진 화분에 찢려서
5. 지킴이 할아버지
6. 형
7. 증인
8. 저금통을 털어서
9. 형
10.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워서 등

009쪽

지킴이 할아버지	형	'나'(황동호)
<p>예시 답안</p> <p>친절하고 정직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 '나'를 걱정하고 예뻐하신다.</p>	<p>예시 답안</p> <p>거짓말이 나쁜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중요시한다. / 뒤늦게라도 잘못을 사과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p>	<p>예시 답안</p> <p>거짓말을 하기 싫어한다. / 자신의 거짓말로 어려움에 처한 지킴이 할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p>

010쪽

(1)

	형	'나'(황동호)
의견	<p>예시 답안</p> <p>거짓말을 해서라도 증인을 서 달라.</p>	<p>예시 답안</p> <p>거짓말을 하는 증인이 되기 싫다.</p>
뒷받침 내용	<p>헛소문을 낸 아들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니까 창피하다.</p>	<p>거짓말을 해서 전교 회장이 되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게 더 낫다.</p>

(2) 거짓말을 하는 증인이 되기 싫다는 '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은 낳고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011쪽

예시 답안

화분을 깬 것이 자신이라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아마도 교장 선생님과 '나'의 담임 선생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형은 평소 소원대로 전교 회장에 출마하였을 것이고, 무난히 당선되었을 것 같아요.

예시 답안

○○월 ○○일 ○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너무도 슬픈 날이다.

학교 아이들이 내가 거짓 증언한 것을 알아버렸다. 나는 거짓말쟁이로 찍혔고, 형은 전교 회장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다.

미리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무리 부모님의 실망이 클 것이 걱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미리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나의 거짓말로 인해 지킴이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상처받고 헛된 소문에 시달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형도 떳떳하고 멋진 형으로 남았을 것이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밝히는 멋진 형으로 말이다.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부모님께서 받으신 상처가 몹시 컸나 보다. 일을 이렇게 만든 내 책임도 있어서 너무 슬프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솔직히 말해야겠다.

정말 하루가 길다. 내일부터 아이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